**섣부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! (2) / 캡틴 카레**

****

† 섣부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!(2)

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고,

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 인도뿐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곳에서나

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가?

그렇다면 상한 갈대를 꺽지 않으시고, 꺼져 가는 심지를 –

그것이 얼마나 많은 연기를 뿜어내든 전혀 개의치 않고-

끄지 않으시는 나사렛의 목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.

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셨던 예수께서는

잘못한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때까지

희미하게 타오르고 있던

그들의 불씨를 살려 큰 불꽃이 되게 하셨다.

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다.

그분께서는 사랑과 희망으로 실망치 않고

꾸준히 제자들을 돌보셨다.

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영원한 진리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,

덧없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목전의 상황과 실패만을 바라본다.

하이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

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,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, 잘못된 자가 바른 삶을 사는

역사가 일어났다.

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이드 만한 사람을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다.

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은

그들의 삶에서 좋은 면만을 보려고 했고,

그러한 면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에 있었다.

어떤 사람의 삶에서 좋은 면만 발전시켜나가다 보면,

나중에는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다.

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눈감아 주어야 할까?

죄를 절대로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?

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자. 주님께서도 때로 죄를 꾸짖으신 적이 있었다.

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, 곧 그분을 반대하고,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만

꾸짖으셨음을 알 수 있다.

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좋은 면만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셨다.

하지만 끝까지 선한 것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하셨다.

이런 점에서 볼 때, 우리도 악한 이들을 책망할 수는 있다.

하지만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혹독한 책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.

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에서 좋은 면만을 보려는 사랑의 마음에 있어서

우리는 주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(캡틴 카레가 지은 “기도하는 하이드” 중에서...)